

* 학습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 단순 오타를 제외하고,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음영 표시를 했습니다. 음영 표시만 확인하셔도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For 2025 P.I.R.A.M 국어 생각 워크북 독서편 정오표 (본교재)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For 2025 P.I.R.A.M 국어 생각 워크북 독서편 정오표 (해설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1페이지 왼쪽 단 5문단 ⑤~⑥ 해설 (2쇄부터 반영)	<p>⑤~⑥ #화제의 흐름</p> <p>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었네요. 과학적 논쟁도 없고,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성을 가진 역법이 완성되었으니까요. '절기'에 잘 맞으니 '부활절'을 지키는 데도 문제가 없었겠죠? 오늘날까지도 쓰이는 것을 보니 정말 잘 만들었나 봅니다. 이렇게 '의의'로 지문이 마무리되네요.</p>	<p>④~⑥ #화제의 흐름</p> <p>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었네요. 1만 년에 3일이 '절기'와 차이가 생길 정도로 '정확'하고,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도 않는 역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절기'에 잘 맞으니 '부활절'을 지키는 데도 문제가 없었겠죠? 오늘날까지도 쓰이는 것을 보니 정말 잘 만들었나 봅니다. 이렇게 '의의'로 지문이 마무리되네요.</p>
96페이지 오른쪽 단 ⑤ #문제점 제시 부분 (2쇄부터 반영)	<p>⑤ #문제점 제시</p> <p>'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부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이중 가닥 DNA'에 '특이'하게 반응해서 '결합'하는 염료네요.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한다고 합니다. 우선, '이중 가닥'에 '특이'적으로 '결합'했다는 생각과, 이 '이중 가닥 DNA'가 한 사이클 후 '증폭'된 DNA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 문단에서 한 사이클이 지날 때마다 '새로운 이중 가닥'이 생성된다는 점을 이해했으니 말이에요. 결국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에 의해 발색이 일어나면 DNA가 '증폭'되어 '새로운 이중 가닥'이 생겨났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납득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p>	<p>④ #정의 체크 #단어의 의미 살리기</p> <p>'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부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이중 가닥 DNA'에 '특이'하게 반응해서 '결합'하는 염료네요.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한다고 합니다. 우선, '이중 가닥'에 '특이'적으로 '결합'했다는 생각과, 이 '이중 가닥 DNA'가 한 사이클 후 '증폭'된 DNA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 문단에서 한 사이클이 지날 때마다 '새로운 이중 가닥'이 생성된다는 점을 이해했으니 말이에요. 결국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에 의해 발색이 일어나면 DNA가 '증폭'되어 '새로운 이중 가닥'이 생겨났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납득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p> <p>⑤ #문제점 제시</p> <p>그러나 문제가 있네요.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말 그대로 '이중 가닥'에 결합하는 염료이기 때문에, 프라이머끼리 결합한 이중 가닥에도 결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프라이머의 정의가 기억나지 않으면 올라가서 확인하고 와야겠죠? 프라이머는 '단일 가닥 DNA'입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이중 가닥 DNA'가 되겠죠. '이중 가닥 DNA 염료'가 이 이중 가닥에 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생긴 '이중 가닥 DNA'는 증폭되어 생성된 DNA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문에서는 '의도치 않은 발색'이라고 서술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5번 문장 해설 누락되었습니다.)</p>

263페이지 141번 문제 5번 선지 해설 (2쇄부터 반영)	명시적 근거	1문단 3번~5번 문장, 3문단 1번~3번 문장, <보기>	명시적 근거	1문단 3번~5번 문장, 3문단~4문단 전체,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은 귀납 논증이지.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포퍼는 연역으로 과학을 할 수 있다고 했지.
	해설	㉠은 '귀납 논증'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보기>를 분석하면서 미리 생각했듯이, (가)~(나)의 논증은 '귀납 논증'이고 (ㄱ)~(ㄷ)의 논증은 '연역 논증'이었죠? 그렇다면 ㉠은 (가)~(나)의 논증을 통해 결론을 증명하겠네요.	해설	'포퍼'의 주장을 묻고 있습니다. '포퍼'는 '연역 논증'을 통해 과학적 지식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선지에서는 ㉠ 자체가 아니라 ㉠의 '모든 까마귀가 검다.'에 대해서만 묻고 있습니다. '포퍼'에 따르면, '모든 까마귀가 검다.'는 (ㄱ)~(ㄷ)과 같은 '연역 논증'을 통해 과학적 지식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명제라고 할 수 있겠죠?

For 2025 P.I.R.A.M 국어 생각 워크북 문학편 정오표 (본교재)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For 2025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문학편 정오표 (해설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376페이지 223번 문제 4번 선지 '해설' 2문단 밑에서 네 줄 (2쇄부터 반영)	이러한 독해를 근거로 하면, 조정의 일에 '무관심'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오히려 생각없이 관심을 가져서 '이 집'의 가세를 기울게 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이죠.	이처럼 '험 업는 종'은 그저 무능력한 신하들을 비유한 표현일 뿐. 조정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신하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애초에 그런 내용을 허용할 근거를 찾을 수 없으니까요.